

# 도덕 · 윤리

수험 번호 : (                      )                      성 명 : (                      )

제1차 시험	3 교시 전공B	6분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	----------	---------	-----------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시오.
- 모든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서술형 [1~4]**

1. 다음 가상 대화의 ㉠에 들어갈 진술을 ‘도덕적 가치’라는 말을 사용하여 쓰고, ㉡에 들어갈 방법과 그 효과를 각각 서술하시오. [5점]

도덕 교사: 도덕적 행동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요?  
 레스트(J. Rest): 인간이 도덕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4가지 내적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4가지 요소가 ‘4구성 요소 모델’을 이룹니다. 즉, 도덕적 행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판단, 도덕적 동기, 도덕적 실행력의 4가지 심리 과정이 있어야 하죠.  
 도덕 교사: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가치가 사람들의 유일한 가치는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쾌락이나 지위 등과 관련된 가치가 도덕적 가치와 충돌을 일으킬 때도 있더군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도덕적 행동이 일어나는 것인가요?  
 레스트(J. Rest): 제가 보기엔 그 물음에 대해서는 ‘4구성 요소 모델’의 한 요소인 도덕적 동기를 알면 대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 동기는 사람이 그러한 충돌을 겪을 때 ㉠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도덕 교사: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도덕 수업에서 학생들의 자아 강도를 높이는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학생들이 곤경과 유혹을 극복하고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레스트(J. Rest): 그렇다면 ‘4구성 요소 모델’의 네 번째 요소인 도덕적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군요. 그 방법은 먼저, 교사가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제에 대한 자신감과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 역시 과제나 목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

2. (가), (나)는 고대 동양 고전의 일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은 의(義)의 개념을, (㉡)은 기(氣)의 개념을 중심으로 각각 설명하시오. [5점]

(가)	제자가 물었다. “( ㉠ )이/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스승이 말하였다. “말하기 어렵다. 이것은 의(義)와 도(道)가 배합된 것이다. 의와 도가 없으면 힘이 없게 된다. …(중략)… 마음에 꺼리는 일을 하고 나면, 이것은 맥이 빠질 것이다. 나는 그래서 ‘고자(告子)는 의를 알지 못한다. 의를 밖에서 오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의란 마음 안에 주어진 것이니 반드시 그것을 길러야 한다.”
(나)	안희가 물었다. “저는 가난하여 여러 달 동안 술도 못 마시고, 양념한 음식도 먹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재(齋)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그런 것은 ‘제사 지낼 때의 재’이지, ‘( ㉡ )’이/가 아니다.” 안희가 ‘( ㉡ )’이/가 무엇인지 다시 물었다. 그러자 공자가 대답했다. “…(전략)… 귀는 고작 소리를 들을 뿐이고, 마음은 고작 사물을 인식할 뿐이지만, 기(氣)는 텅 비어서 무엇이든 받아들여 기다린다.”

3. 갑, 을은 서양 윤리 사상가의 주장이다. 갑의 윤리적 관점에서 동물에 대한 을의 입장을 비판하는 근거 3가지를 서술하시오. [5점]

갑: 왜 동물의 이익은 인간의 이익만큼 보편적으로 고려되지 않는가? ... (중략) ... 언젠가는 다리의 수나 털의 많음이 동물의 이익을 무시할 이유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밖에 넘을 수 없는 다른 경계선이 존재하는가? 그것은 이성의 능력인가, 아니면 말하는 능력인가? 그러나 다 자란 말이나 개는 태어난 지 한 달된 유아보다 더 합리적이고, 말이 더 잘 통하는 동물이다. 문제는 그들이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가도, 말을 할 수 있는가도 아니다. 문제는 그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이다.

을: 인간은 사고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있다. 바로 이런 능력 때문에 인간은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그러나 동물은 그와 같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인간을 죽이는 것은 죄가 되지만, 동물을 죽이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동물을 죽이는 것이 죄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동물은 자연의 과정에서 인간이 사용하도록 운명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동물을 죽이거나 동물을 이용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정의롭지 못한 것이 아니다.

4. (가)는 어느 서양 사상가의 주장을 기술한 것이고, (나)는 이 사상가가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근거를 정리한 것이다. ㉠을 설명하고 ㉡, ㉢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서술하시오. [5점]

(가)	<p>자유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하고 또 유일하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이다. 그럼에도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강제나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원리가 있다.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 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 (중략) ... 여론을 이용하여 자유를 구속한다면 그것은 여론에 반해 자유를 구속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나쁜 것이다.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머지 사람 전부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만큼이나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p>
(나)	<p>○ 침묵을 강요당하는 의견의 진리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사상 및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왜냐하면</p> <p>① 침묵을 강요당하는 의견이 전적으로 진리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p> <p>② 침묵을 강요당하는 의견이 _____ ㉡ _____.</p> <p>○ 통설이 진리이고 침묵을 강요당하는 의견이 진리가 아니라도, 사상 및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왜냐하면</p> <p>① 통설이 진지하게 시험받지 않으면, _____ ㉢ _____.</p> <p>② 통설이 진지하게 시험받지 않으면, 진리로서의 통설의 의미가 퇴색되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p>

논술형 [1~2]

1. 갑, 을, 병은 도덕 교육 이론가들이다. 갑과 을이 주장하는 '자율성' 개념을 각각 쓰고, 그 개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한 다음, 밑줄 친 한계점 2가지를 '기존 질서'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논술하시오. [10점]

갑: 도덕 교육은 비사회적인 존재를 사회적인 존재로 만드는 과정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에 의해 부여되는 절대적인 도덕과 결별해야 한다. 각각의 사회가 도덕의 기반이 되므로 사회학적 연구를 통해 각 사회가 이상으로 하는 도덕을 찾아내고, 도덕성의 3가지 요소인 규율 정신, 집단애의 애착, 자율성을 키워 사회 구성원들의 도덕성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을: 도덕 교육은 도덕에 대한 사고 구조의 수준을 높이는 과정이다. 아동의 행위를 관찰해서 연구해 보면, 아동의 도덕성은 타율성 중심의 도덕에서 자율성 중심의 도덕으로 발달한다. '갑'의 생각과 달리, 때때로 아동은 성인 사회 규칙보다 아동 상호 간 사회의 규칙을 더 잘 따른다. '갑'은 성인 사회와는 다른 아동들의 사회가 있음을 몰랐던 것이다.

병: 도덕 교육은 학생들이 3수준 6단계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상향 이동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즉, 학생들의 도덕 추론 능력을 키워 궁극적으로 보편적 도덕 원리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을'은 아동기 이후의 도덕성 발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또한 '갑'은 이러한 도덕성 발달 단계를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4단계를 최고의 단계로 보는 오류를 범하였다. 내가 보기에 4단계의 관점은 분명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2. 갑, 을은 한국 사상가들이다. 밑줄 친 ㉠, ㉡에 대한 갑과 을의 견해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갑과 을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수양에 대한 입장과 방법을 '경(敬)' 개념을 활용하여 논술하시오. [10점]

갑: ㉠인심(人心)이란 인욕(人欲)의 근본이고, 인욕이란 인심의 말류(末流)이다. 무릇 형기(形氣)에서 생하는 마음은 성인(聖人)이라도 없을 수 없으므로, 그것을 인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 곧바로 인욕이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욕이 생겨나는 것은 실로 인심에서 말미암기 때문에 인심을 인욕의 근본이라 말하는 것이다. 물욕(物欲)에 빠지는 마음은 사람들이 하늘의 이치를 회피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인욕이라 일컫는 것은 인심에서 변칭(變稱)된 것이다. 이로써 인심이 처음에는 인욕과 같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인욕을 인심의 말류라 한다.

을: 정(情)이 발할 때 도의(道義)를 위해 발한 것이 있으니 이를 ㉡도심(道心)이라 한다. 구체(口體)를 위해 발한 것이 있으니 이를 인심이라 한다. 이기(理氣)는 혼융(渾融)하여 원래 떨어질 수 없으므로, 마음이 움직여 정이 될 때 발하는 것은 기(氣)이고, 발하는 근거는 이(理)이다. 기가 아니면 발할 수 없고 이가 아니면 발할 근거가 없으니, 어찌 이발(理發)과 기발(氣發)의 구분이 있겠는가? 다만 도심은 비록 기를 떠나 있지는 않으나 도의를 위해 발한 것이므로 성명(性命)에 속한다. 인심 또한 비록 이에 근본을 두고는 있지만 구체를 위해 발한 것이므로 형기(形氣)에 속한다.

<수고하셨습니다.>